

OJT(일본 단기 인턴십)를 마치고

응용화학생명공학과 201420373 황동원

어린 시절부터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서브컬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한명 있는데, 형은 일본의 만화와 게임을 즐겼다. 어린 마음에서의 동경에서였을까. 나는 형이 게임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좀더 나이가 먹어 자연스레 형으로부터 물려받는 식으로 게임기를 잡게 되었다. 미려한 그림체, 흡입력있는 스토리는 나를 빠져들게 했고 한번 클리어를 했음에도 아쉬움에 두 세 번 반복해서 계속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자연스레 일본어가 늘게되었다. 하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일본어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고 그때만 해도 일본어를 제대로 해보겠단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그들은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고 내세울 것이 있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해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던 나로서는 위기감이 들기에 충분했다. 내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만하게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하던 끝에 나온 답은 일본어였다. 정신없이 일본어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일본어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하지만, 제대후에 고생해서 딴 자격증을 써먹는것은 꽤나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학교의 공지사항을 보던 중 OJT 프로그램을 뽑는 공지를 확인하게 된다. 처음에는 지원 자격이 일본어 자격증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일단 지원했었다. 항상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일본어 자격증을 댄다고 써왔지만 사실 큰 연관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기에 나에게 딱 들어맞는 지원자격을 보고 흥분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지원서를 쓰고 교수님께 면접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일본어로 또 한번 자소서와 이력서를 작성했다. 동아리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고 새로 알바도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기에 조금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항공권과 보험이 확정되고 방학이 되어 株式会社 ダイコー-IWS에 기업연수를 떠나게 된다.

아마 나 이후에 파견될 학생들은 별다른 변경이 없다면 똑같은 다이코-IWS에 연수를 가게 될 거라 생각한다. 지원서를 위해 회사정보를 검색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조금 알려주자면, '다이코'라는 이름으로 다섯 개 정도의 계열사가 있고 다이코 IWS는 그 중 한 계열사이다. IT 기업이며, 자세히는 전공이 달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고객들(대부분 기업인 듯 하다)이 원하는 IT계열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하는 듯했다. 다른 계열사들은 모르겠지만 IWS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으며 (직원 30명 내외) 모두가 상기 설명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고객에 대한 업무 뿐만이 아닌, 회사 자체 내의 행정업무, 회사내의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셨다. 회사 홈페이지에 써있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직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일본에 관심이 있었고 언어도 어느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노리고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마음도 있다. 어디선가 주워듣기로는 일본의 회사문화가 한국보다도 보수적이고 딱딱하다고 들었었다. 따라서 처음엔 굉장히 긴장했었다. 동작이나 언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기억이 있다. 근데 의외로 회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회사입장에서도 회사홍보를 위해 안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면 안되니까 직원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고 유도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를 지나다 보니 그런 꾸민 모습이 아닌 진짜 원래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롭다고 말해봤자 잘 감이 안올거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회사 내에 한국인이 한분 계셨다. 그 분은 같은 한국인이라 우리에게 마음이 갔는지 우리가 퇴근하려고 할 때 우리 쪽 자리로 오셔서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히로시마의 관광, 쇼핑 리스트들을 설명해주셨는데 거의 첫날에는 한시간 가까이 우리를 붙잡고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일반 직원보다 한 시간 일찍(5시) 퇴근해서 상관없었지만 그분은 그 당시 근무시간이었다. 하지만, 주변 상사나 회사사람들 그 누구도 그 분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초반 회사 분위기를 살피던 내가 더 눈치를 봤던 기억이 있다. 나중에 들어보니 프로젝트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조퇴를 하던 유급휴가를 내던 자신의 일만 제대로 한다면 회사에서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휴가를 낼 때 일본에선 법적으로 휴가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한가지 더 회사 분위기가 꾸밈없는 진실이라고 느꼈던 것은 다른 직원들의 근무 중 대화였다. 맞은편에 앉아계셨던 직원분들이 일 도중에 프로젝트 관련으로 의논할 게 있었는지 꽤 길게 몇분 모여 대화를 하고 계셨다. 근데 좀 이상했던 게 그분들의 상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도 근무중이었음에도 학교 쉬는시간에 떠들 듯이 크게 웃거나 장난을 치는 등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밝았다. 내 귀에도 사무실 내에서 하는 대화치고는 조금 소리가 크지 않나 싶을 정도였다. 속 부장님이나 차장님의 눈치를 보니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일본의 근무 환경이 내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 연수는 히로시마에서 이루어졌다. 굉장히 좋았다. 개인적으로 도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 도쿄는 일본어 써 있는 서울 느낌이라 전혀 외국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히로시마는 원폭을 맞았던 도시라 호기심이 갔고 또 좀 더 찾아보니 일본 3대 절경인 이쓰쿠시마 신사가 있다고 해서 더욱 호감이 갔다. 이걸 읽고 있는 히로시마를 가게 될 사람들을 위해 조금 팁을 주자면 히로시마에 가능한 빨리 도착해 이쓰쿠시마 신사를 갈 것을 추천한다. 가장 큰 목적은 회사 연수이지만 아무래도 히로시마에 갈 기회가 흔치 않아 마음이 들뜨는 것도 당연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관광도 해야할 것 아닌가. 히로시마는 이쓰쿠시마가 거의 반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히로시마에 공항이 있지만 직항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국이 시국이였기에 비행기편도 그리 많지 않아 우리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신칸센으로 히로시마에 갔다. 신칸센 시간이 애매해 남은 시간동안 후쿠오카 관광을 하려고 캐리어를 보관할 보관함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고 밥 먹겠다고 줄서느라 히로시마에 늦게 도착해 나는 신사를 보지 못했다. OJT는 자유시간을 하루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착 첫날이 아니면 낮 시간에 관광지를 돌아볼 여유가 안된다. 꼭 첫날에 가능한 빨리 히로시마에 도착해 신사에 갈 시간을 확보했으면 한다. 하지만 히로시마 역 근처에 있는 원폭 돔이나 히로시마 성도 상당히 볼만 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아마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이 히로시마에 가게 됐다면 꽤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보고서를 쓰기 위해 가장 최근의 OJT 보고서를 읽어 보았는데 대부분 도쿄였던 걸로 기억한다. 도쿄의 프로그램에서는 사막게임이니 추리 퀴즈같은 조금 회사와 관련이 적어 보이는 활동들도 하는 것 같은데 히로시마에서는 정말 일본 신입사원이 받을 만한 연수만 받는다.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보고, 일본에서 명함을 주고 받을 때의 예의, 회사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의 응대 방법, 회사 보안에 관한 교육, 회사 근처에 있는 보안 등급이 높은 데이터 센터의 견학, 실제 회사에서 쓰이는 서류의 작성,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퇴근 미팅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정말 일에 관련된 연수만 받아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알찬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인이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OJT프로그램이 짧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본 회사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일본어를 쓰면서 일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OJT 프로그램부터 히로시마의 OJT 담당자분들이 바뀌어 예전 글들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본인이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접하게 될 히라타 씨말고는 스에오카 차장님, 스미다 님, 이시우에 부장님은 IWS로 이직하신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네 분 모두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모든 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한번 씩 인사를 나눠본 입장에서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겁먹고 틀릴까봐 전전긍긍해서 말을 줄이다가 일본어 조금만 더 써보고 올 걸하고 귀국할때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질러보고, 주의를 받는다면 그때가서 고치는게 자신에게 훨씬 좋다. 그리고 솔직히 본인 스스로 알 것이다. 내가 지금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는게 혼날까봐 하지 못하는 건지 본인이 용기를 내기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것인지를. 나는 이번 OJT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지원서를 낼 때에 이 프로그램에서 얻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연수기간에 항상 떠올리면서 행동한다면 짧지만 정말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